

○ 최근 평가원 문학 트렌드

- 문학의 난이도가 21수능을 기점으로 급격히 올라옴.
- 최고난도 문제는 '사실적 이해'에 관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.
- 고전시가, 현대소설, 고전소설, 현대시, 극문학, 수필문학의 정형화된 출제 형태를 보임.

○ 이 글의 목적

필자의 문학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여러 대응 전략과 문학 개념 일부를 간략하게 다루고 독자들이 스스로 기출 분석을 진행하며 여러 번 되돌아오며 체화할 수 있는 글이 되는 것.

○ 문학 문제 풀이 일반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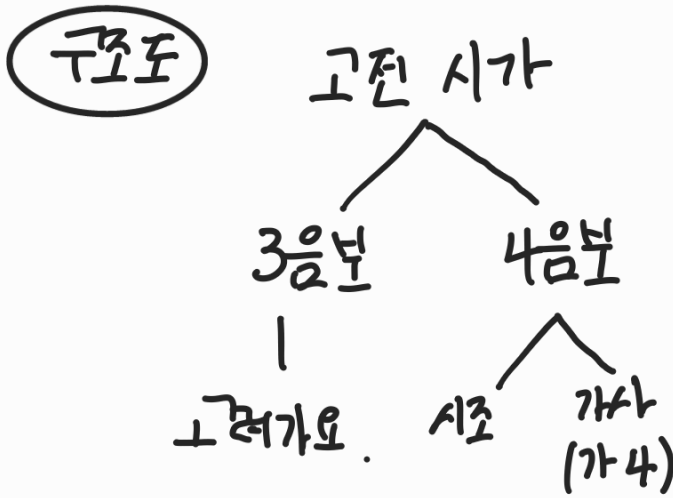
1. 보기부터 지문에 앞서 읽기.
2. ㉠, ㉡, ㉢ → 글을 읽으며 처리.
3. 보합지문 (가. 나. 다)
⇒ 한지문 단위의 문제부터 풀다.

○ 이 글의 구성

- 문학의 출제 형태에 따라 간략하게 개념과 최신 출제 경향, 필자의 문제 풀이법 등을 정리합니다.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말 일부의 경우에 관련 작품을 언급합니다.
- 부록에서는 단골 출제 요소 중 하나인 시의 표현법에 대해서 총정리합니다.

○ 문학의 출제 형태에 따른 간략한 총.정.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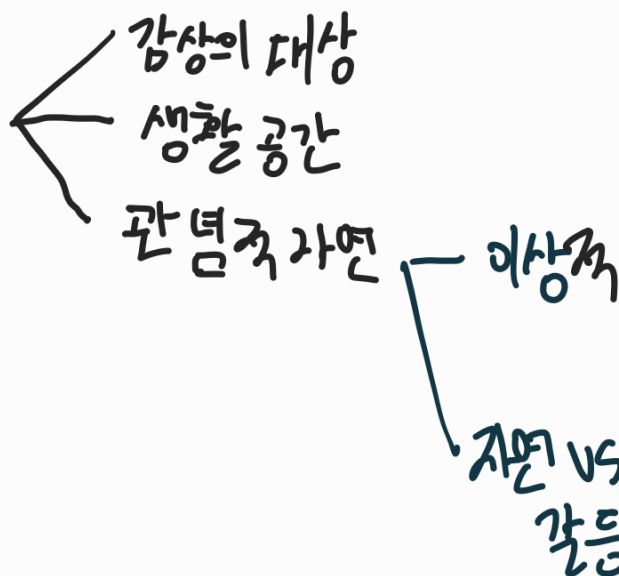
1. 고전시가



- 개념개념
 - ① 음운 [모음, 자음]
 - ② 음조 - 길다 짧
 - ③ 어절 - 띄어쓰기
 - ④ 음보 - 끊어내기
- * 시는 음보에 맞춰 읽으면
빠르고 정확한 독해에
도움이 된다!

* 주제이식

1. 사랑 < 남녀
 < 임금
2. 유교적 가치 - 충·효·예·학
3. 풍자 + 비판 (조선 후기 작)
4. 자연



- ex
- 상춘곡 / 면앙경가
 - 전가할곡 / 농가
 - 만흥 / 도산십이곡 / 고산구곡가
 - 만인사 / 단가북향 / 어부판가

* 풀이법

1. 주제 의식에 맞춰 읽어야 한다.

2. 모르는 어휘에 쫓지 않는다.

⇒ '맥락'과 '주변글자'를 이용하여 독해한다.

* 최신 출제경향

고전적으로도, 최근에도 정답률이 저조한 문학갈래에 속한다.

납득하기 어려운 시적 의미를 묻는 문항은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, 정리된 지식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읽어 나가며 '사실적으로 판단'하면 고난도 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다.

다양한 작품을 읽으며 익숙해지도록 한다.

2. 고전소설

정리할 개념이 많지 않으므로 최신 출제 경향을 우선적으로 짚고 가도록 한다.

*최신 출제 경향

- 1) 인물이 많이 등장한다. 그리고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다양한 어휘가 존재한다.
- 2)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고전소설의 이해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.
- 3) 고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최근 출제경향은 아니다.
- 4) 주석에 문제 풀이에 주요한 단서를 던져주는 경우가 다수 있다.
- 5) 다른 갈래와는 다르게 <보기>의 중요성이 떨어진다. 즉, 배경지식용이나 문제 세팅용으로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.
- 6) 대화상황이 자주 연출된다. 그리고 이때 대화상황에 갈등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 대화파트를 읽을 때는

① 리도 + 목적
 ② 반박 이유. 근거

의 두가지 포인트를 신경쓰며 정확하게 읽어나가도록 한다.

7) 인물구조도에 관한 나의 생각

-써도 그만, 안 써도 그만이다. 나는 잘 안 쓴다. 근데 또 인물이 너무 생소하거나 자주 등장한다면 작게 메모하는 것도 추천한다.

8) 최근 고난도 문제는 말장난스러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. 누가,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,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읽고, 이중 한 두가지 요소를 바꾸어 물어보는 선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보도록 한다.

* 고전소설의 어휘

1. 고전소설 속 종류어 관직

중앙

승상	= 국목총리
상서	= 장관
시랑	= 차관

현역

한 길=누사
= 대동경 비서실장

지방

자사, 태수	= 조기사
현령, 도독	= 시장
윤님	= 고을 유택머리
형리, 이방, 사정	= 관청일꾼

2. 11 조선의 관직

(중앙)

정승	= 국무총리
판서	= 장관
참판	= 차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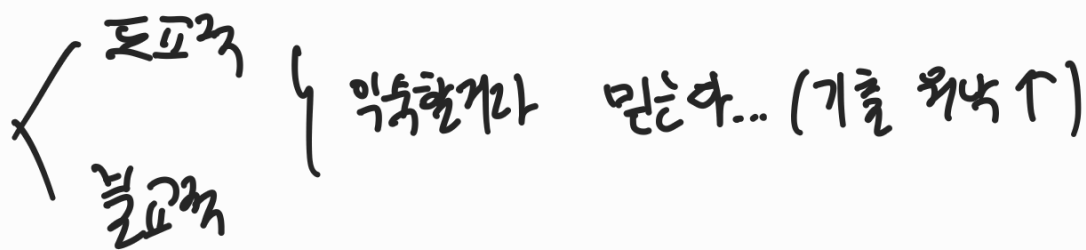
(중앙서)

승리
= 대통령 비서실장

(지방)

관찰사, 감사	= 도지사
목사, 부사	= 큰 지역 대장
군사, 현령, 현감	= 작은 지역 대장
좌수, 우수	= 동서부서장
도감	= 이감
영기, 이방, 사령	= 관청의 관

3. 중요직 시계관



*다만 어떤 인물/장소의 중요직 (연간직) 인

특성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어떤 용어가 도교직인지, 부교직인지 따지는 알 필요 없다.

ex) 박유천 → 현상의 중요직 장소 정도만 인지하기!

4. 일반 호흡 / 시공간 표현

구 고하, 낮/너 구별만 연습!

- 고하: 신분이 지표 \Rightarrow 인물 관계 파악이 주요 단서
- 낮/너: 그 자체로 문제풀이 단서 이 핵심 키가 될수 있음.

구시공간은 낮/밤 너/외 구별만 연습!

- 낮/밤 & 너/외 구별 연습의 중요성

: 기를 문제 풀어 보면 이 자체로 신지하되게,

핵심적 장면 변화의 지표임을 알 수 있다.

그도 그럴 것이, 낮/밤은 시간적-으로
대조적인 관계이고 각기 깊은 상징적 의미를

갖는다. 너/외도 이와 비슷하게,

분명한 상징성은 문학 속에서 인물/사건의
성격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.

* 지문 분석틀 (for 고전/현대 소설)

① 시/공간 \Rightarrow 장면이 분할.

② 인물 관계

- 글을 읽어내는 것의 기본은

$\left(\begin{array}{l} \text{반복} \\ \text{대조대비} \\ \text{변화} \end{array} \right)$ 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.

고전/현대소설이 독해에도 이는 유효하다.

따라서

시/공간에 의해 장면이 구획되는 것을

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내용적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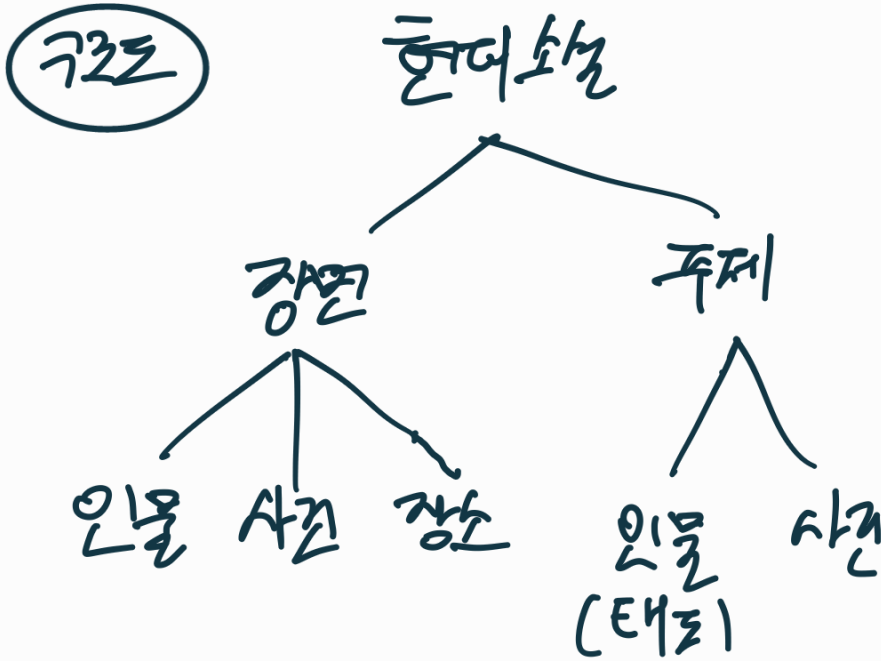
$\left(\begin{array}{l} \text{반복} \\ \text{대조대비} \\ \text{변화} \end{array} \right)$ 를 체크해나가는 것은 단순히
소설 전체 푸는 것이 아니라

읽는 것이 아닌 흐름적 정보 처리 능력의
기초가 됨을 인지하자.

3. 현대소설

*최신 출제 경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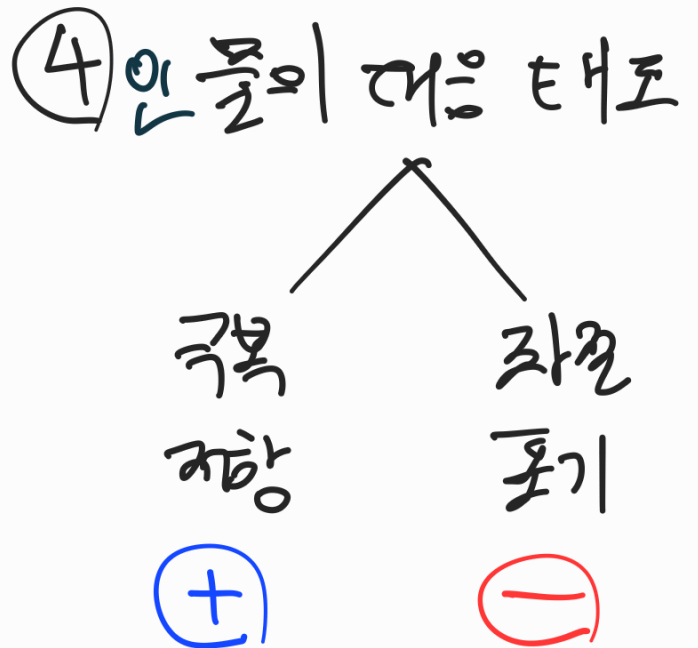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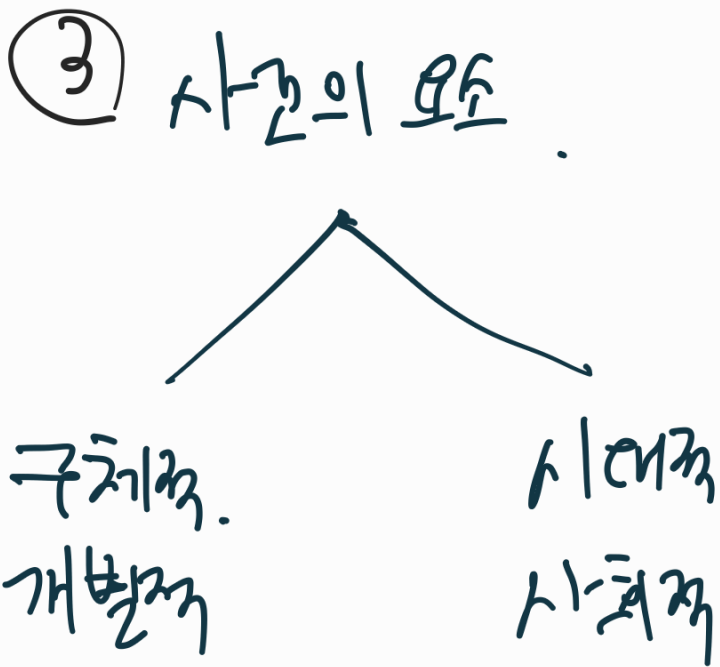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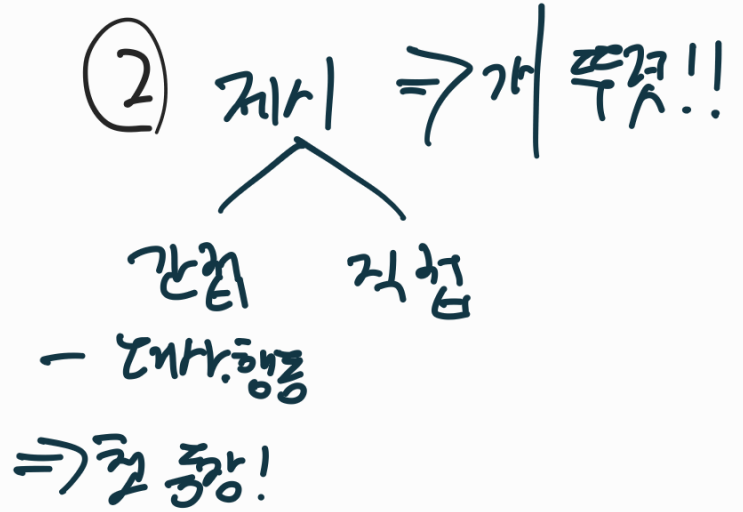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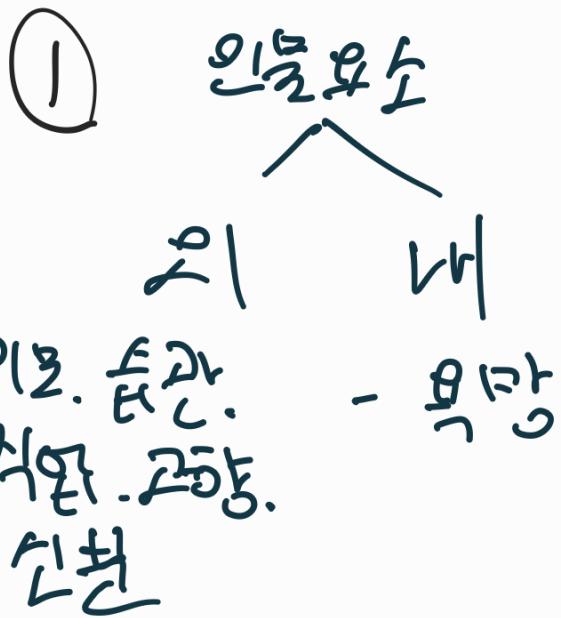
-가장 근본적으로는 고전소설과 비슷하다. 그러나, 고전소설은 재미를 위해 쓰여진 작품이 다수이고, 현대소설은 좀더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. 따라서 의미파악에 있어 좀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현대소설이다. 인칭의 개념과 서술, 발화의 주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. 또, 다른 장르와 다르게 사실적 요소 뿐 아니라 의미적 요소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편이라 볼 수 있다. <보기>를 지문 읽기전에 가볍게 읽으며 저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좋을 것이다.



추측해볼 수 있어야 할 태도

- 아무리 복잡한 지문이라도 장면 하나당 하나의 포인트가 실리를 기억하고, 글이 전체적으로 잘 안 읽히고 막막하게 느껴질다면 장면 별로 끊어가며 읽어보려고 노력한다.

* 인물 / 사건 분석틀



→ 기출 지문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문제를
틀렸을 때 이 틀에 맞추어 지문을
분석해 보자.

특히 EBS 작품을 위 틀에 맞추어 분석해보면
큰 도움이 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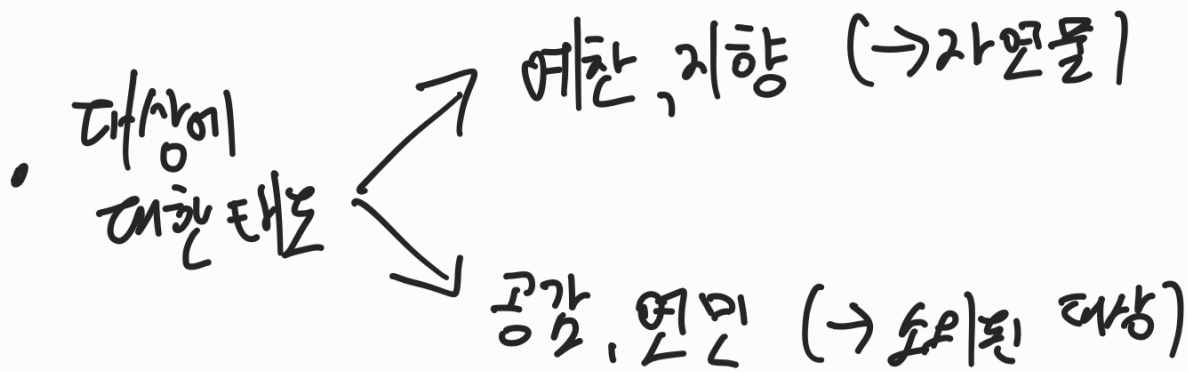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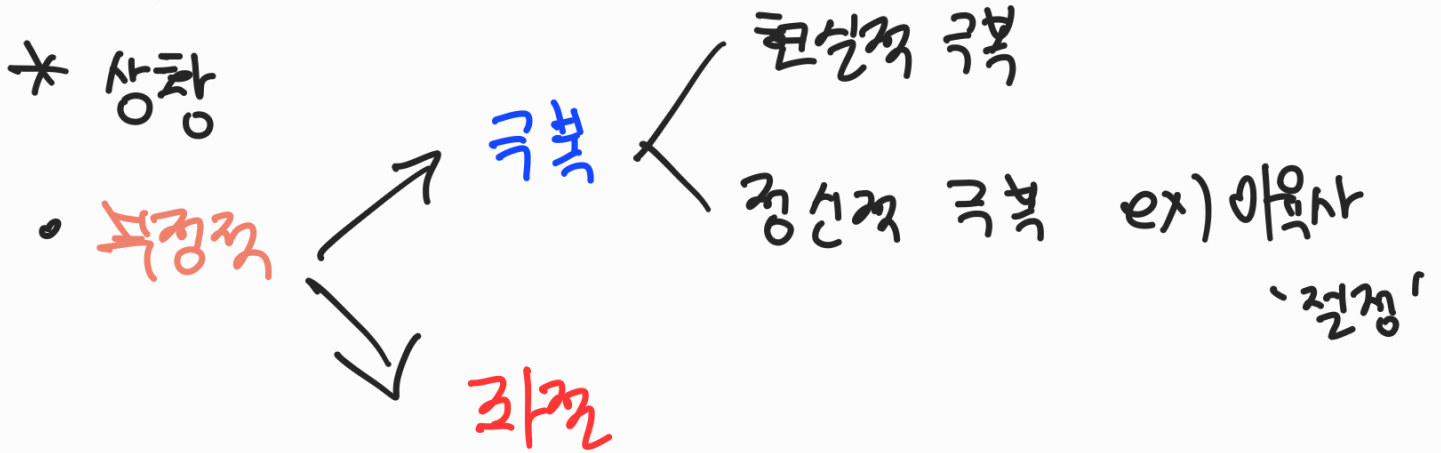
4. 현대시

*현대시에 대한 오해와 편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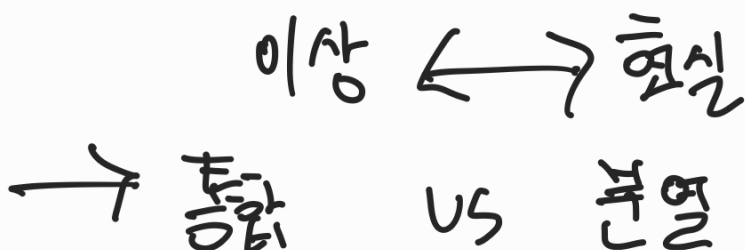
-현대시는 애매모호하다?->옛날 기출이나 통용되는 이야기이다. 요즘에는 현대시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근거로 문제가 풀리도록 출제되고 있다.

*현대시의 최신 출제 경향

바로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뚜렷하고 분명한 정답 도출이 가능하도록 출제되고 있다. 그럼에도 현대시에 대한 해석은 어렵고, 이게 효율적 제 풀이의 장애물이 된다. 어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? '수능'에 출제되는 현대시는 <보기>가 있다면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서, <보기>가 없다면 작가의 문제의식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지문과 문제를 뚫어나가야 한다. 따라서 나는 여기서 '수능'현대시에 출제되는 제한된 문제의식을 몇 가지 다루도록 하겠다.(지금까지의 기출에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의식의 경우 보기를 통해 제시해왔다. 대개 모더니즘적인, 난해한 시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. 풀지 말고, 걱정하지 말고 보기를 믿고 문제를 풀어라.)



• 자아성찰



* 문제 칸 풀기.

① 네 생각 < 평가원의 생각 (명심!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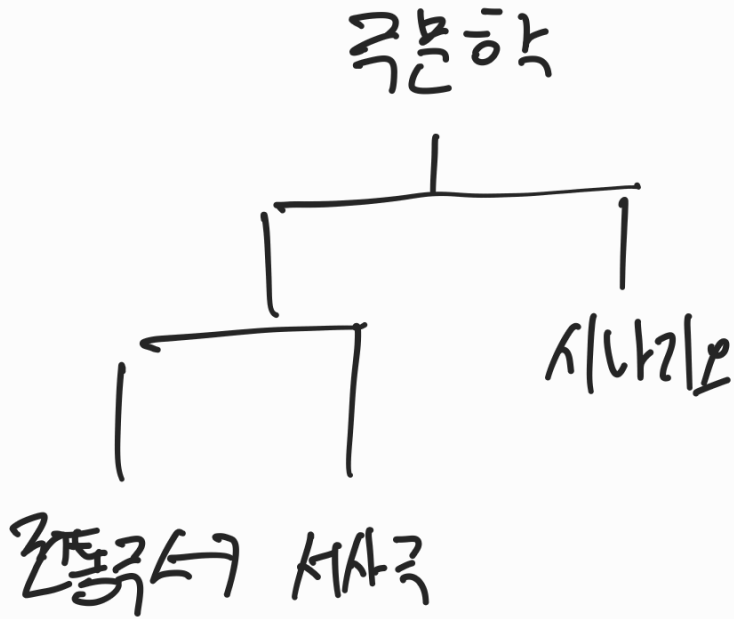
② 결론 < 근거 (결론은 내가 낸 것,
근거는 평가원이 준 것)

③ 어마하면 '사실' 부터 체크!

5,6. 극문학, 수필문학

*최신출제경향

잘 안나오고 나와도 별로 안 어렵다.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위에 제시된 도구들을 몇 번 적용해보는 정도면 수능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. 정말 개략적인 개념과 도식만 짚고 넘기도록 하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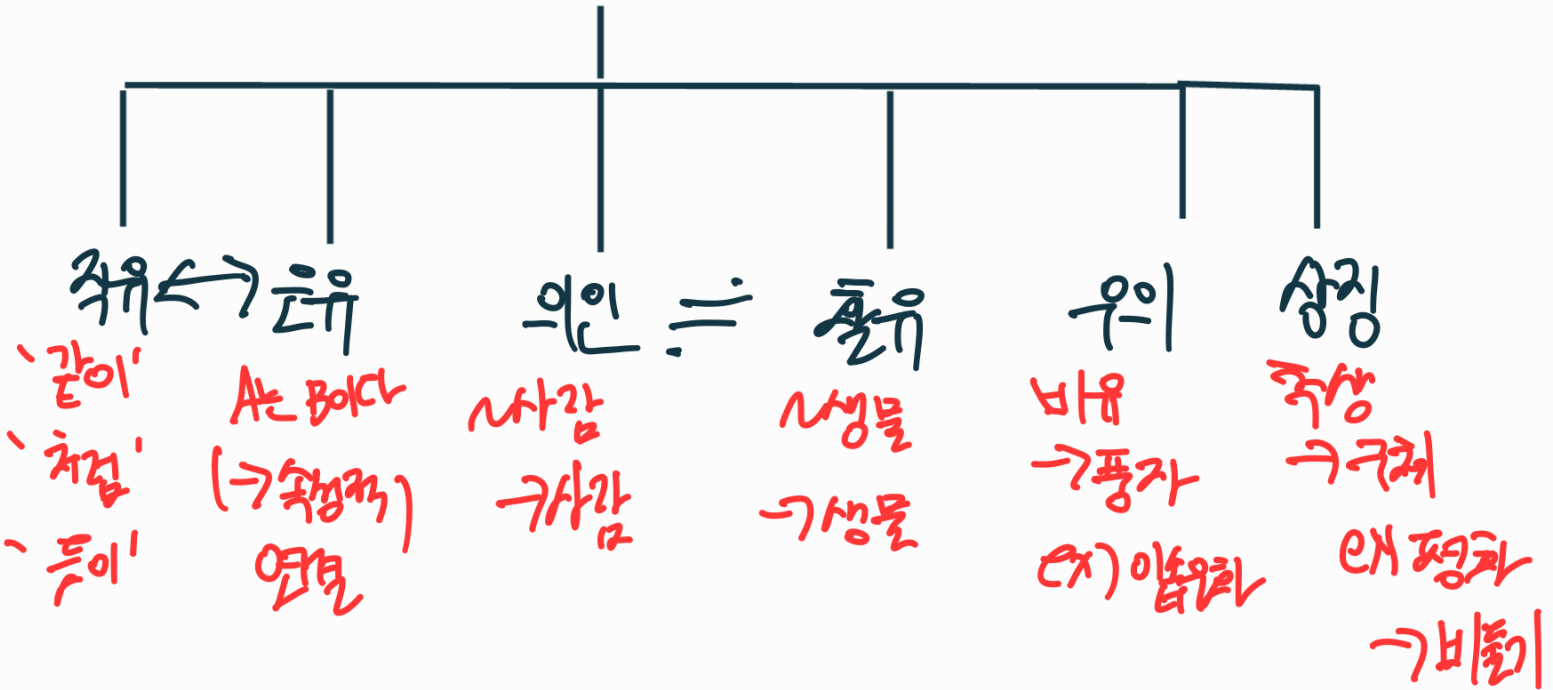


수필문학

체험 → 내면.

복록 - 시의 표현법 총정리.

① 비유



② 설의법

-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->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함
-판단기준

1) 의문형 형식임 것

2) 대답없고

-강조효과

③ 감탄법

-출제 빈도 높음
-감탄사, 감탄조사를 이용해 희노애락을 강하게 표현하는 기법임.
-판단기준

1) 감탄형 형식임 2) 감탄사 3) 호명조사 (-아/야, -이여) 4) 감탄
3) 감탄사 4) 감탄

④ 대구법

-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 맞추어 표현함으로써 운율감을 높이는 기법
- 판단법

1) 문장 형식의 일치.
(형식 통일, 소재 통일)

⑤ 대조법

- 상반되는 두 어구 또는 사상을 내세워 강조
-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, 의미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함.

⑥ 역설과 반어

- 자주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표현법이다.
- 역설은 표면적 모순을 통해 이면의 진리를 드러내는 표현법이고, 반어는 실제와 반대로 말함으로써 표현효과를 높이는 표현법이다.
- 판단기준

1) 표면이 모순 \rightarrow 역설

2) 의도와 표현의 상반 \rightarrow 반어

	역설	반어
표면	$\sim A$ (모순) \uparrow	$\sim A$ (\sim 모순) \uparrow
이면	A	A

① 반복과 수미상관.

- 자주 출제된다.

- 동일/비슷한 시어, 구, 절,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기법이다.

- 반복과 수미상관의 차이

수미상관은 "처음과 끝이 대응되어 반복된다"는 특징을 가진다.

② 변용과 주관적 변용.

- 쉬운 말은 아니다. "변형하여 활용한다"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간단하고 문제 없다.

- 예시를 통해 구분해 보도록 한다.

ex) 변용

· 이없을게 → 아니없을게

· 보았을까나 → 하였을까나

등의 변형된 활용이 같은 시 내부에서 나타난다.

ex) 주관적 변용

- 좋은 예시이자 유명한 작품

→ 황진이, 뉘를 한 허리 비껴내어

(흔들) 시불 아끼 서리서리 너웠다가...

→ '시각'에 대한 화가의 '주관적' 변용이 나타난다.

고마워합니다

자알 놀다갑니다 ~